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6年(檀紀4319年) 9月30日 第115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崔在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 267-8568
274-7449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호번호 7500891

東國 80주년 기념관 짓는다

동국대학교 80주년 기념관



기념관 부지서 기공식 가저

「東國大學校 80주년 기념관」 건립 기공식이 지난 10월 25일 석조관 옆 건립부지에서 있었다. <관련기사 6면>

이번에 착공된 기념관은 2천식 규모의 대강당을 비롯, 세미나장 및 소극장, 1천명 수용능력의 전시실과 연회장, 禪室 등이 설치되어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하게 된다.

사상 최초로 일본을 누르고 기대를 훨씬 넘어서 10억인구의 중공과 여객을 나란히 하면서 종합 2위를 차지, 온국민을 열광케했던 「제10회 아시아 게임」이 막을 내렸다.

우리 東國人으로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세천수가 모두 금메달을 획득,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한 몫을 톡톡히 하는 한편 東國체육의 저력을 온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남 (84체교·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웰터급) 김수환 (84체교·레슬링 자유형라이트급) 김광선 (체교4·복싱 플라이급) 등 메달리스트의 면모를 살펴보기 바란다. <편집자註>

레슬링 金永南 동문

LA 올림픽에서 4위에 머물고 단 한을 깨듯이 썼어내며 금메달을 목에 건 金동문은 모두가 기대했던 금메달 후보.

항상 우승후보로 지목되었으나 불운으로 아픔을 겪었던 金동문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던 이란의 안두르·레자를 맞이하여 불꽃의 투혼을 발휘하여 여윌있게 파들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업어넘기기에 이는 윌플러기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을 듣는 金동문은 레슬링의 명문 합령농고 시절 현 대표팀 감독 崔慶洙씨의 권유로 레슬링에 입문, 유망한 기대주로 떠올랐으며 인내심이 강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현재 소속팀(동남생명)에서 주장을 맡고 있다.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번씩 매트를 구르곤해 「연습벌레」로리틀 듣는 金동문은 제

金 金 金

중조절 때문에 좋아하는 불고 기대신 채소만 먹으며 땀을 흘린다고.

영평에서 농사를 짓는 金相基씨의 4남 1녀중차남으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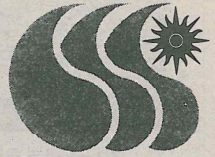
가대표 7년경력의 베테랑으로 불린다 당구로 심신의 피로를 풀기도 한다.

장차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金동문은 이번 대

지못했으나 막상 경기에 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총동원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 운동시작10

년만에 결실을 보게됐다. 경기에 입하면 너무 서두르는 것이 단점이지만 성실한 성격에 언제나 연습에 충실한 대기만성형의 노력파로 국가대표 3년경력의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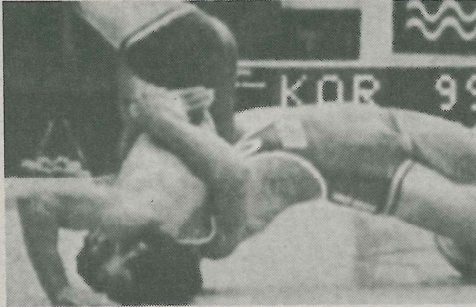
고향 보성에서 농사를 짓는 金祥德씨의 3형제중 막내로 우울할때면 산을 찾아 마음을 풀곤하는 특이한 천주교신자이기도 한 金동문은 김치찌개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SEOUL 1986

의 첫세로 예선에서 분투를 삼겨야 했던 金군은 이번 대회에서 분풀이라도 하듯 화끈한 경기를 펼친 끝에 예선을 RS C 또는 일방적 관정으로 이끌면서 결승에 진출, 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결승전을 KO로 장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양공고 1년시절 현재 모교인전부부 코치인 金銀永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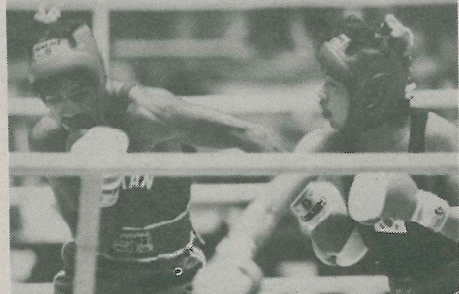


레슬링그레코로만형74kg급 결승에서 金永南동문이 이란의레자를 안아던지기로 공격하고있다.

LA 4위의 恨씻어 金永南 동문

金光善군, 승부근성 뛰어난 「차돌이」

운동10년만의 결실 金樹煥 동문



복싱 플라이급 결승서 金光善군이 인도의 디리즈 다를 2라운드 2분58초만에 KO로 제압했다.



레슬링 자유형68kg급 결승서 金樹煥동문이 일본의 아카이시를 공격하고있다.

회의 성과에 만족하지않고 더욱 정진해 88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모교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이에게 보답하겠다며 오늘도 훈련에열중하고 있다.

레슬링 金樹煥 동문

金동문의 금메달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다. 더구나 LA에 메달리스트인 일본의 아카이시를 꺾고 우승, 레슬링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레슬링의 명문 전남 합령농고 시절 레슬링에 입문한 金동문은 그동안 국제경기등에서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지 못해 협회나 코칭스태프의 주목을받

않아주며 꼭이키라고 성원해주 시던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환하게 웃는다.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한 88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해 86의 영광을 뒤로 한채 오늘도 훈련에 열중하는 金동문을 보며 88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확신해본다.

복싱 金光善 군

82년부터 최경량급인 라이트 플라이급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83년 제3회 월드컵 복싱대회(로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경량급 최고의 강타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84년 LA 올림픽에서 주최국

지대로 권투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이번대회 우승을 포함, 그동안 각종대회에서 금5, 은1개를 따내는 화려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LA 올림픽이후 체중감량 때문에 한체급을 올려 플라이급으로 뛰고있는 金군은 1m58로 플라이급 선수치곤 단신으로, 키의 핸디캡을 뛰어난 체력과 끈끈한 승부근성으로 극복하고 있어 「차돌이」 「라이터 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김갑천씨의 3형제중 막내인 金군은 88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유력 시되고 있어 東國복싱을 이끌어갈 유망주로 꼽히고 있다.

Advertisement for 'Seoul 1986' featuring various sports images and the slogan '선진 인재를 향한 우리의 도전과 자부심!' (Our challenge and pride in facing advanced talents!). It includes the logo for the 1986 Asian Games and the publisher's information: 東明印刷社, 서울特別市 中區 洞洞2街 61-16, TEL: 266-6323, 267-6313.

회비모아 同窓會館 짓는다

성금·년회비등 건립기금 10억원넘어서

- 7만 동문의 요람이 될 同窓會館 건립기금이 1억원을 넘어서다. 그동안 뜻있는
- 동문들의 성금과 본회의 긴축운영을 통해 년회비 전액을 적립하는등 기금모집에
- 전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월 본회 사무국 이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 시작한 會館건립기금이 어느새 1억 1천만원이 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동창회와
- 모교 발전에 초석이 될 同窓會館건립에 온힘을 기울이는 한편 동문 모두의 성
- 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7만同門 모두의 참여 기대

지난 7월 본회 사무국의 이전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에 많은 동문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재 1억원을 넘어섰다.

이달중 회관건립 기금에 협찬해준 농본농로는 차版熙(52경계·경북광우목 회장) 부회장이 5백만원, 김철중(60정치·삼흥건설 대표이사) 동문이 5백만원, 吳昌均(61사학·창원기업 회장·보회 사무이사) 동문이 1천만원, 李和一(65사학·조선과학 대표이사·보회 사무이사) 동문이 1천만원을 보내온 것을 비롯, 익명의 한동문이 1천만원등 4천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그동안 柳開聲(57농학·충남방직그룹 부회장) 부회장이 본회 사무국의 임대보증금을 회사한 것을 비롯, 文泰植(49해전), 金聖涉(53정치), 鄭相永(61법리), 朴煥亨(63경계)등 동문들이 기금모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회에서는 앞으로 회관건립

에 온힘을 기울이는 한편 보 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हे문회「송년의밤」 12월13일청기와서

혜화전문을 출간한 최교장

「동문가족야유회」성황리 마쳐

經院동창회, 우이동 그린파크서

경연대학원 동창회(회장=曹奎·77경원·외교양현대표)에서는 10월12일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 산장에서「제1회 동문가족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同會의 창립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날 가족야유회에는 3백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 가족별, 期별, 개인별 장기자랑과 보물찾기등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함께 가족들간에도 東國愛를 나누었다.

同會에서는 앞으로도 매년가

신배들의 모임인 혜문회(회장=金定基·49해전)에서는 오는 12월13일 오후 3시 종로구 중학동 「청기」에서 송년의밤 모임을 갖는다.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역대 혜문회 공로자에 대한 표창이 있을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한다.

을월엔 가족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파라과이서 소식 동문10여명 활동

남미의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박철철동문이 최근 본회



각급東友會 체육대회 盛況 忠南지부·大邱지부·연영과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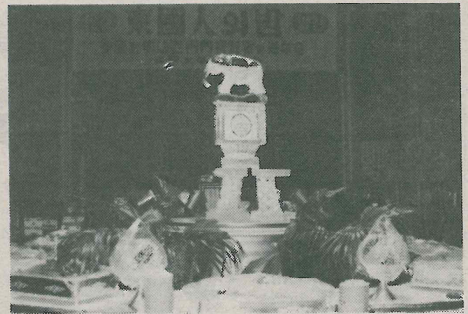
〔회장=朴鍾允·59 해전〕의 제 1회 동문 체육대회가 10월12일 대전 보문중고교 교정에서 1백3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모교의 개교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는 서전, 풍주, 아산(오암) 대전등 충남 지역의 동문들이 대거 참석, 축구, 배구, 줄다리기 4백m계주, 삼갈리기등 종목에 걸쳐 열띤경합을 벌였다.

〔회장=全泰成·57 경계〕에서는 지난 9월21일 공무원연금센터 테니스구장에서 「동창회 장배정달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20여명의 동문들이 가족 동반으로 참가한 이날대회에서 우승은 이종기(71삼학) 서성준(73 화학) 동문조가 차지했으며 부부조에서는 이종기동문 부부와 구교찬(64법학) 동문 부부가 각각 1·2등을 차지했다.

〔회장=李成雄·1기〕에서는 10월25일 오



“우리는 하나, 영원한 東國,”

「東國人的 밤」12월19일에

금년도 「제15회東國人的 밤」이 오는 12월19일 오후 6시30분부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1년동안 만나지 못했던 先後輩가 모여 재회의 기쁨과 東國發展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이 행사가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同門기쁨의 생산품이나 각급 단우東友會의 찬조품등 영운상품의 협찬을 바라고있다. 아울러 각지부·회에서는 동창회 발전에 공이 큰 동문 축하및 감사패 대상자 추천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로 소식을 보내왔다. 차동문의 전언에 따르면 여러 명이 많은 동문 10여명이 자주 모여 同學의 정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연락처: TTE.FARINA.No1499-C/AV.PERU ASCUNCION PARA QUAY 우주여행사 (TRISMO UNIVERSO S.R.L.) 대표 박형철 (PRESIDENT Hyung Chul Park)

재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축구, 배구, 릴레이, 줄다리기등경기를 통해선후배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졌다.

한편 체육대회가 끝난후 입시총회를 갖고 金錫雨전회장이 이어 李成雄(1기·법원시험회 회장) 동문을 2대회장으로 선출하는등 임원개선을 하였으며,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 1백만원을전달하기로 하였다.

政外科장기이사회 상학금확대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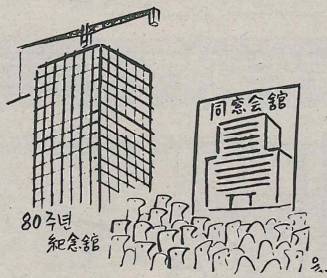
정의과동창회(회장=王鈞學·55 정치)에서는 10월24일 이사회 회를 갖고 정기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등을 토의했다.

주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차 翊柱(61 정치·국회의원) 동문 嚴光燾(64정치·모교교수) 동문등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12월초에 정기총회를 열기로하고, 정기총회시 송년모임을 함께 갖기로 하였으며 세무사할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고 현재 재학생 4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同窓會학금을 더욱확대, 대학원생에게도 대학기 2명의 선반 韓相根(60정치·철인제약 대표이사) 동문이 회사한 장학금을 금년도부터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東友漫評

鄭雲耕



“이쪽도 빨리 지어야..”

최고년 13.53%의 수익률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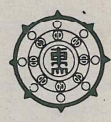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최실한 투자 용역인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표 771 06



모교의 校標가 바뀌었습니다



(변경전)

현행 母校의 교표는 1963년에 제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중간에 특별한 이유없이 형태가 일부 변형된 채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변형된 부분유원형대로 환원하고 디자인을 새롭게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수정된 교표의 사본을 제작, 각 지부·회로 발송하였는데, 앞으로 각지부·회에서는 교표 사용시 수정된 문양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회장=李成雄·1기〕에서는 10월25일 오



「코끼리대리점」운영으로 기금마련 무료진료·정박아돕기등 지역발전에 힘써

결과 현재 회원수가 6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회의 모임은 격월로 간부회의를 번갈아 갖고 있으며 동원들의 경조사 참여는 물론 연말모임과 지난6월에 있는 창립1주년 기념행사에는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갖는 등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증

애에서 따와 「코끼리 대리점」이라고 하고 지난9월16일에는城北區同門會 현관식에서는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며 동회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동창회와 모교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기도했다. 코끼리 대리점에서 나오는

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앞으로는 동회의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동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모교의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희장은 타지역에서도 동회를 본받아 區단위 동문회를 결성, 모든區마다 東大同窓會가 있어 함께 모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도봉구에도 동

창회를 조직중에 있으며 이의 결성이 실현되면 성북구와 함께 「성·봉·동창회」를 만들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전진자가 될것을 다짐했다.

연락처·성북구보통동5가261 동원빌딩 505호(925)1183



金光鎭 회장



친에 노력하고 있다. 동회에서는 회 활성화를 기하고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위하여 金光鎭회장의 지원으로 동창회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이곳에다 (株) 고려화학해상보현 코끼리대리점을 개설하여 그 수익금으로 숲운영기금및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대리점의 상호도 모교의 상징인 白

수익금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으나 어느정도 기금이 적립되는 내년경부터는 모교후배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줄수 있을것 같아 기대에 차있다.

동회에서는 장학사업 외에도 야구등 모교의 참가 있을 때면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하는 한편, 모교의 체육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축구와 농구등 다른종목의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교 농구부가 창단후 첫우승을 차지한 「추계대학 농구연맹전」 결승전이 있던 仁川체육관으로 많은 동원들이 응원을 가 몰라들 을로수를 선수들에게 제공하는등 불심암 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김희장이 4년째 개인적으로 해오던 성북구 관내의 영세민들에 대한 무료진료와정 바아들을 위한 「사랑의선교원」에 매년 쌀과 연탄을 사주는

임원및 회원 명단
고문=李昌大(55사하·홍익여고 주임교사) 申火活(61법학·금강철강대대표) 李康壽(63법학·삼선2동장) 李慶純(64법학·한일방직株 상임이사)
회장=金光鎭(69경협·풍년과대표)
부회장=權壽榮(63법학·성북구청 위생계장) 柳奕樹(66행정·성북새문서 법인과장) 鄭善模(66입학·성북경찰서 방범순찰대장) 洪元杓(68정의·미아약사대포) 高龍圭(74정의·명인제약株 영입이사) 李二圭(76수학·라스베가스 대표)

감사=朴大赫(63생물·홍창기업대표) 朴永鎭(71경협·시경감찰계 주임)
회원=崔明在(61영문·매일유업株 비상기획부장) 李德秀(61법과·성북새문서 총무과) 鄭基喆(62국문·태무관총분과 관장) 高在雄(63경제·대창종합개발株 전무이사) 朴柱旻(63법학·성북건강원장) 成洛雄(63법학·성북경찰서 보안과) 金元正(63경제·개인사업) 金應來(63법학·민정당성북지구당 총무과장) 金英根(63경제·대영약품대표) 安秉憲(64화학·대한화학회사무장) 兪兪植(65법학·HLI 학원 교육부장) 金玆植(66식공·진안기업株 대표) 鄭聖采(67입학·동아제약株약품2부장) 李忠敦(67경협·민정당성북지구당지능부장) 辛萬洪(67입학·성북구청 녹지과주임) 朴聖百(68

행정·성북구청건설관리과장) 鄭祥均(68경협·경찰대행정학과주임교수) 元鍾浩(69경협·경남리경철학교통계과장 겸강) 辛榮根(70경협·서초경찰서 형사계장 겸강) 金大潤(71경협·치안본부제1부기획과기획담당총경) 李聖燮(71경협·중앙경찰서 대공1계장 겸강) 蔡殊水(71상학·성북구청 총무과인사주임) 崔昌植(71경협·정릉2동 건설담당) 尹東植(71상학·성북구청 총무과동정계주임) 張順憲(72경협·성북경찰서 경비계장 겸강) 金正基(73경협·속대파출소장 겸강) 潘成坤(73영문·성북경찰서 정보과주임 겸강) 金敏彥(74통계·동대문시장이회실 비서실장) 朴衍柱(75경협·삼선파출소장 겸강) 金炳성(78 통계·미림슈퍼마켓대표) 朴鍾漢(78경협·중앙경찰서 경비계장 겸강) 金錫九(81경협·안산파출소장 겸강) 趙炳仁(81경협·한국화공학의 사무과장) 趙映燾(83경협·성북파출소장) 崔松熙(83전산·국민은행사무부부 개선과) 任國彬(85경협·서선파출소장 겸강) 金亨珪(85산공·성북구청 주력과) 金善民(86입학) 李錫甲(64경제) 나기연(69경협) 박경남(60경제·태평양화학 영업부장) 박산희(86농학) 김창구(84법학) 金榮一(63정의·前사무과장) 趙王默(행민在·비즈의류대표·총무) 배연인(85사학·간사) 崔相鎭(51혜전) 尹福根(51혜전)

城北區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있는 동원들이 모여 동회의 情을 나누고 있는城北區同門會(회장=金光鎭·69경협). 회의 연표는 얼마되지 않았으나 어느 東友會보다도 단합되고 알찬 활동을 보이고 있다.

처음 지냈던 몇몇 동문끼리 삼삼오오 모이곤 하다가 지난해에 비로소 李康壽(63법학·초대회장) 등본과 現회장인 金光鎭동원을 비롯, 金榮一(63정의·前사무과장) 成洛雄(63법학) 高在雄(63경제) 金應來(63법학) 李慶純(64법학) 동원등이 주축이 되어 주위의 동원들을 찾아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거쳐 85년 6월25일 김광호 동원이 결연하고 있는 풍년각에서 발기총회를 갖고 정식출발했다.



▲사무실 현관식때에는 동창회발전과 「코끼리대리점」의 번창을위해 고사를 지내기도했다.

東友會報 창간10주년 기념 광고기획⑥ 「서로돕는 同門社會」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新羅명과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광 우(70경영)

세무사 鄭 大 鎭(63법학)

稅務상담·기장대리
심사·심판·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信 一 山 金 屬 商 社
信 一 金 屬 工 芸 社

信一金屬: 서울·中區 乙支路 3 街251-3
電話 266-6662, 265-3258
275-5615

斗山金屬: 서울·中區 山林洞 152-2
電話 265-1516

信一工藝: 서울·中區 乙支路 3 街251-3
電話 265-1317

現代自動車(株) HYUNDAI

“선화한 통화로...”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현대생산차종: 엑셀 AMX 프레스도 CXL 소나타

2,000CC 2,400CC 3,000CC

TEL 274-3103~7
야간 914-6584

판매과장: 柳在善(70농경·ROTC 8기)

실내 장식용 금속 판매

대표이사 金鍾葉(84경원)

千允基 동문 이민 체험기 2

前 캐나다동창회 고문 千允基 (50 경제) 동문이 이민생활 20년동안 보고 듣고 느낀것들을 隨想으로 옮겼다.

첫번째 『世代差』 (115호) 에 이어 『人生은 60부터』 등 6회에 걸쳐 연재하는 千동문의 체험담을 통해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고국과 모교에 대한 향수를 함께 느껴보기도 한다.

〈 편집지침 〉

우리가 새창을 사서 6, 7년 지나 그자의 마일게이지가 10만마일이 넘으면 그자는 『한 바퀴 돌았다』 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돌았다는 애견대 영어로는 It is over the hill. 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자를 더 타



千 允 基

〈 前 캐나다 동창회 고문 〉

게되면 어쩔지 공차로 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기분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사람도 60세가 넘으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한바퀴 돌았다 또는 『한돌았다』 라고 할수 있겠고 그이상 살게되면 덤으로 사는, 즉 보너스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이 60세가 되면 인생의 종반전에 들어가는 셈이 되지요. 20세까지는 초반전, 40세까지는 중반전 60세까지가 후반전, 그리고 그 이상은 보너스로 사는 중반전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60부터 (Life Begins At 60)』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기계와 달리 늙는인 동물인고로 60이됨으로써 비로서 세상경험을 할만큼 하게되고, 세상물정을 알만큼 알게되고, 책도 한권 더 읽을 시간을 갖게됐다는 얘기가 되고 어느정도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질수 있다가 때가 됩니다.

60이 되었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You Don't Get Older, You Get Better And Smarter. 즉 사람이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지고 현명

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고 나의 부부가 작년 여름 미국의 플로리다로 휴가여행을 갔을때 얘깁니다. 그곳에서 디즈니월드, 씨월드, 브루가든 등 여러곳을 구경했는데, 그중 씨크월드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은 사람과 동물들이 여러가지 폭에를 하고, 요술·마술을 하고 재미있더군요.

그런데 입장료가 일인당 \$ 11.50이고로 두사람 요급인 \$23을 썼더니 친구의 미국아

“당신은 씨니어 씨티즌 이니까 弗 11.50을 디스카운트 해준다.” 하더군요. 그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충격을...

가씨가 티켓 두장과 함께 \$ 11.50을 도루 내주더군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11.50을 창구에 다시 넣어 주며 『티켓이 두장인데 어째서 \$11.50을 거슬러 주시요?』 하고 물어보니 그이까지 □ 『당신은 씨니어 씨티즌 (노인) 이니까 \$11.50을 디스카운트해 준다』 고 하더군요. 그말을 듣는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읍니다.

나를 처음보는 아가씨가 보자마자 나를 노인 취급을 하니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차라리 \$11.50을 마저받고 노인

취급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읍니다.

또한 나의 딸이 재작년에 첫 아기를 낳았을때 이웃의 서양사람들로부터 『손녀를 봐서 축하하네』 리는 인사를 받게때마 내가 더욱 늙어가는 느낌, 서운한 느낌을 받았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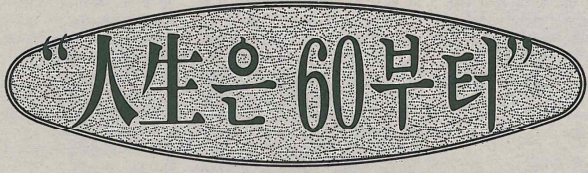
사람이 말년을 여행하노라던 도중에 만났사람, 소만사람들

면인, 9.28서울수복후 유엔군 통역으로 미군과 더불어 신의 주까지 진격했다가 부산까지 후퇴했던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시절 서울미극대사관에 근무하는동안 한국정치이 열고설치를 체험한일, LA에서 거래선에 배달하려고 차에 실어놓은 가발상품 2천여개어치를 데 낮에 손시간에 도난당하고 짚

사람의 한세상은 『Life is Short』란 말과 같이 짧으로 짧습니다. 희망과 이상에 가득찬 젊은 청년이 그꿈을 실현시켜 보려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며 동분서주하다보니 어느덧 60이 넘는 할아버지가 되어 지금은 낯설고 물결은 어려난 타국땅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은퇴생활을 하고있으니 나 자신이 믿어지지않고 꿈만 같습니다.

좌우간 인생은 일정총명이요, 또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인데, 흘러가는 무정세월을 그들강변 수양버들 나뭇가지에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는 없으나 모든것을 운명에 맡기고 인생의 종점까지 세월따라 물결따라 바람따라 흘러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짚매던일 등등 지금 생각하면 잊을수 없는, 추억에 남는 회·비극도 참으로 많았지요.



“友情的 자리·結束의 자리”

제15회 東國인의밤 개최

12월19일에 만납시다.

7만 東國인이 하나가되어 내일의 東國榮光을 넘겨주는 友情과 結束의 자리, 1986년도 『東國인의 밤』 큰잔치가 아래와같이 개최될 예정이니 同門여러분의 빠진것은 착상을 바랍니다.

이번 『제15회 東國인의 밤』은 특히 올해가 모교의 개교 80주년이라는 해인만큼 모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회의 기쁨을 나누고 東國 미래를 기약하는 자리가 되도록 합니다. 특히 지방 및 여대동문들과 최근에 졸업한 동문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 아 래 —

1. 日 時 = 1986年 12月 19日 (金) 午後 6時 30分
 2. 場 所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 主要行事
 - ① 東國을 빛낸 同門축하패수어
 - ② 送年피터
 - ③ 幸運券추첨등
- ※ 기타제한것은 本會 事務局으로 문의바랍니다. (267-8568-274-7449)

1986年 11月 日

東國大學校 同窓會

會長 鄭在哲

대우자동차 (株)

“멋과 개성이 함께 달린다”

- 렉시-나
- 로얄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싸롱
- 싸롱 슈퍼
- 월드카 (르망) 판매대시

* 중고차 중개

판매대리 : 崔鉉石 (74연영)

TEL. 544-1928-1128 (야간) 487-7539

강남구 논현동 88-7 (교래B/D 1층)

신용·진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 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 265-0086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회분·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5-1
진영빌딩 3층 42호

●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46호

代表 金基俊 61경제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연운)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우문 맞은편)

小説英雄門

*金一江
유킴

감수록더큰英雄을 세우는金庸
小説의최고봉「소설영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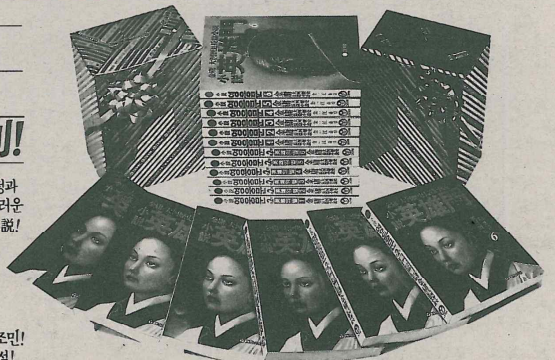
金庸
大河歷史
長篇小説

제1부·몽고의별전6권完刊!
제2부·영웅의별전6권完刊!
小説英雄門·제3부 中原의별 出刊!

제1부·몽고의별 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큰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그의 연인 황용! 무수한 영웅호걸들이 출몰하는 어지러운 대륙의 역사 속에서도 信義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진짜 사나이들을 위한 大河歷史 長篇小説!

제2부·영웅의별 모순에 찬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지순한 사랑으로 연인 양파를 英雄門으로 이끄는 소년네! 현대여성들의 애정관에 충격을 던진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의 神話!

제3부·中原의별 우환이 많은 人間世 속에서 大仁大勇의 心氣를 키워가는 영웅 장무기와 그에게 사랑을 바치는 美人 조민! 사랑의 신성불가침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허무를 극복한 허무의 경지에 이르는 莊子의 소설!



*제1부·전6권/제2부·전6권/제3부·전6권/각 330면 내외 *각권 값 3,0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제1부·제2부·제3부 중 어느 것을 택해서 읽으셔도 재미있습니다.

處世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鄒飛石作 小説孫子兵法!

小説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説楚漢誌!

인류사상 最大의 英雄傳 鄒飛石作 小説三國志!

小説孫子兵法

●전4권/각300면 내외/각권 값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음.

小説楚漢誌

●전5권/각300면 내외/각권 값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음.

小説三國志

●전6권/각330면 내외/각권 값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음.



서울·중포구 우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6622호
영업부: (033)36441-3
편집부: (033)71741-5

노스웨스트 오리엔트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아시는분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십니까? 일주일 중 어느날이라도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이 있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미국 제1의 태평양 횡단 항공사가 드리는 또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는 지난 39년간 한국과 미국간을 계속해서 운항해 온 항공사로서 매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항공편을 비롯하여 씨애틀행 논스톱편을 통해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모셔드리며 도착 즉시 방대한 국내선 연결망을 통해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불편 없이 미국의 주요도시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일등석과 익제큐티브 클래스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리갈 임페리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전화하십시오.

5:10pm	→	씨애틀 (착 9:50am)
4:30pm	→	로스앤젤레스 (착 10:05am)
1:45pm	→	시카고 (착 12:15pm)*
	→	뉴욕 (착 3:20pm)
12:50pm	→	샌프란시스코 (착 12:40pm)
	→	호놀룰루 (착 8:55am)

* 1986년 4월 운항제개



People who know...go
NORTHWEST ORIENT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 조선호텔 753-6106/9, 755-0416/7, 777-9786 ● 롯데호텔 778-8240/1 ● 힐튼호텔 752-2394/5 ● 소공사무실 778-0181/7 ●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